▲ 대성산업에서 건설 예정인 복합단지 조감도

신도림 부근 연탄공장 터에 42층 랜드마크 빌딩 건설

옛 연탄공장 부지가 51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42층 업무빌딩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.

서울시는 "옛 대성연탄 부지인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에 들어설 대성 디큐브시티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안 을 통과시켰다"고 밝혔다.

이번에 디자인이 변경된 건물은 지하 8층, 지상 42층 규모의 상업용 복합건물로, 기존 성냥갑 모양에서 건물 한쪽 외벽 전체가 타원형 디자인으로 꾸며진 형태로 바뀌었다. 건물 지하에는 쇼핑몰 등 판매시설이 생기고, 지상 1~9층에는 뮤지컬 전용극장, 콘서트홀,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들어선다. 10~25층에는 사무실 등 업무시설, 26~42층에는 호텔을 들일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이곳 부지 2만5651㎡에는 최근 착공한 51층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과 42층 랜드마크 빌딩이 2011년까지 들어서게 된다.